

올 여름, 왕의 도시에 '음악의 별' 뜬다

▶ 전주 얼티밋 뮤직페스티벌
8월 4일부터 3일간 종합경기장서

전주MBC, 파이널 라인업 공개
이적·YB·사이먼도미닉 등
락에서 EDM·힙합까지
40팀 넘는 스타들 참여

조선왕조의 발상지 전주. 이 도시의 고
풍스러운 이미지로 인하여 이곳에는 365
일 판소리의 향연만 펼쳐질 것이라는 고
루한 편견을 갖지 말길.

8월, 전주에서도 여느 도시 못지않은
대중음악 페스티벌이 열린다. 전주MBC
가 주최·주관하는 '전주얼티밋뮤직페스
티발', 이는 지역민의 대중음악공연에
대한 갈급함을 일거에 해소하고자 기획
됐다.

전주MBC는 오는 8월 4일~6일 3일간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2017전주
얼티밋뮤직페스티벌(JUMF2017)', 왕의 도
시에 음악의 별이 뜬다의 파이널 라인
업을 공개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이적, NELL, 10CM,
박명수, YB, 볼빨간 사춘기, FT아일랜드,
사이먼도미닉, 로꼬, 창모, DAY6, 이
수(엘씨더맥스) 등 락에서 EDM, 힙합까
지 40팀이 넘는 음악의 별들이 대거 참
여한다.

공연은 락, 펑크, 힙합, 코어, 헤비메탈,
어쿠스틱 밴드들이 출연하는 로얄 스테
이지(ROYAL STAGE)와 EDM, K-POP,
힙합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얼티밋 나잇
(ULTIMATE NIGHTS) 구성된 무대로 즐
길 수 있다.



전주MBC가 주최·주관하는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이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전
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은 유명 아티
스트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장
점이자 매력. 더불어 참신한 인디아티스
트의 쇼케이스 무대로도 가능하다.
JUMF창작가요제 경연을 통해 선발된 5
팀이 대중에게 인사하는 자리.

전주MBC 이태동 PD는 "JUMF는 대부
분의 대규모 페스티벌이 수도권에 집중
돼 있어 문화적으로 소외 돼 왔던 지역
민에게 축제를 선사하고, 인디밴드에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17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JUMF2
017)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
회를 제공하고자 전북지역 대학생들에게
20%의 할인 혜택을, 전국의 내일로·하나
로 열차를 이용하는 청년들에게는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해은 기자



2018 전주국제영화제, 5월 3일 개막 확정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가 2018년 영화제 개막
일을 5월 3일로 확정했다.

전주국제영화제 사무처는 "내년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를
5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발표
했다.

역대 영화제 중 5월에 개막한 전례로는 9회와 15회 두 차
레가 있었다.

특히 19회 전주국제영화제는 20회를 앞두고 영화제의 전통
과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의미를 지닌다.

전주영화제 사무처는 "역대 최대 관객을 동원한 18회 영화
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엄선된 양질의 프로그램과 이벤
트를 선보이겠다"면서 "2017년 많은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
던 '전주 돌'을 재정비함은 물론 '영화 표현의 해방구'를 표
방한 올해의 기초를 이어가면서 명실상부 대안·독립 영화
제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정해은 기자

▶▶ 공연 & 전시 ◀◀

'한여름밤의 1004 콘서트, 락' 장수 한누리전당서

전북도립국악원(원
장 신동원)은 지역
문화관광산업 활성
화를 위해 도내 주요
관광지를 찾아가는
'한여름밤의 예술축
제'를 열고 있다.



국악원은 오는 7일
오후 7시30분 장수군
한누리전당 야외특설무대에서 예술단원과 비보이, 태권도
등 100여명이 출연하는 '한여름밤의 1004 콘서트, 락'을 무
대에 올린다.

장수군·도교육청·도립국악원의 협업으로 열리는 콘서트
락은 장수 청소년과 지역민을 위한 '창조적 문화복지시스
템'으로 기획됐다.

공연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전북전
통예술의 미'를 체험하도록 구성했다. 국악기 연주로 들어보
는 감미로운 국악가요, 젊은 관객을 위한 비보이 협연, 청소
년을 위한 서커스 공연, 지역주민을 위한 부채춤, 창작 작품
'사물놀이와 태권'은 가족·연인·친구가 함께 즐기기에 손
색없다.

전통의 깊이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국악가요 '소
금장수, 배 띄워라, 신사당가', 감각적인 국악 선율 위에 40여
개의 동·서양 타악기와 모듬북의 놀음의 퓨전 창작곡 국악
관련악 '신밧놀이'는 공연의 락, 즐거움을 선사한다.

감미로운 선율로 전통을 재해석한 국악가요 '쑥대머리, 신
사당가'는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진 국악인 '박애리'와 관
현악단이 함께 하는 무대로 수려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
는 화사한 선율로 들려줄 예정이다.

원초적인 매력을 간직한 사물놀이와 태권도가 하나가 되는
사물놀이 판굿과 태권의 후에 '바람의 전설'이 공연의 대미
를 장식한다. /정해은 기자

모차르트 특유의 감성·유쾌함 '이 작품에 다 있다'

소리문화전당, 내일 가족 오페라 '마술피리' 상영

미지의 세계에서 만나는 모차르트의 음악, 그 안
에 숨겨 놓은 수수께끼를 풀어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오는 6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영상화사업 삭온스크린의 일환으로 가족 오페라
'마술피리'를 상영한다.

밤의 여왕의 아리아로 잘 알려진 오페라 '마술피
리'는 시공과 세대를 초월한 모차르트 특유의 감성
과 유쾌함이 한껏 담겨있는 작품으로, 완벽한 음악
적 구성과 함께 대중성까지 겸비해 오랜 시간 큰
사랑을 받아 왔다.

타미노 왕자가 타미나 공주를 구하러 가는 긴 여
정에 함께하는 유쾌한 새잡이꾼과 신기한 마술피
리 그리고 밤의 여왕과 지혜의 자라스트로가 등장

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는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
극하고, 모차르트의 철학과 심오한 사상은 어른들
에게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진다.

이번 상영작은 2015년 서울예술의전당이 제작한
작품으로, '마술피리' 본연의 작품성을 온전히 감
상할 수 있도록 독일어로 노래하는 동시에 모든 대
사를 한국어로 처리해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한편 영상화사업은 우수 레퍼토리 공연을 영상으
로 만들어 국내외에 상영하는 사업. 관람객들은
VIP석에서도 자세히 볼 수 없었던 배우들의 섬세한
표정 연기나 감정까지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 /정해은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인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인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인치즈는 맛과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